

보험금 찾아가세요...아직도 10.7조 남아

지난 1년간 2.8조 주인 찾아졌으나 아직도 남아 14일부터 행안부 전산망 활용해 문자 등 안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숨은 보험금 약 2조 8000억원이 주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10조70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문자메시지 알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찾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10조7340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도보험금 7조 8600억원, 만기보험금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조8267억원(126만 7000건)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숨은 보험금은 막대한 규모다. 지난 1년간 생명보험사가 2조 6698억원(13만6000건), 손해보험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을 지급했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찾아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지난해에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정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우편 안내한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 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했다면 우편을 다시 받

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이달 중 안내우편 수령 여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738건, 8억6000만원)도 함께 안내한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지는 약관에 따라 제공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중도보험금은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계약 시점의 예정이율 +1%p'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기보험금도 2001년 3월 이전에는 '계약 시점의 예정이율 +1%p', 이후에는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만기일 이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된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뉴스1

“800원이면 한 끼 해결”

러시아 국민라면 된 팔도 ‘도시락’



“도시락이요? 일본 제품보다 맛이 있고 편리해서 자주 먹고 있어요. 10년 전에 처음 먹었는데 지금도 집에 많이 사두고 즐깁니다.” (30대 연지인 여성 A씨)

지난 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한 대형마트, 지하 식품관에 내려가자 라면 코너에 팔도 ‘도시락’이 진열돼 있었다. 네모난 용기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팔리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냥 봐서는 팔도 도시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지인은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 도시락, 보따리장수에 서 출발...러시아, 국민라면으로 자리매김

러시아에서 도시락 인기는 1990년대 초 부산항 보따리 상인에서 시작했다. 사각 모양의 도시락은 러시아 선원들이 사용하던 휴대용 수프 용기와 비슷했다. 흔들리는 배와 기차 안에서 먹기에 편리했고 칼칼한 맛도 러시아인에게 익숙했다. 이후 도시락 인기는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됐다. 팔도는 인기를 직감하고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시장조사에 집중했다. 1997년 현지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망을 구축했

다. 도시락 러시아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2005년 21억 루블(420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 처음으로 연 매출 100억 루블(2000억원)을 돌파했다. 러시아 시장 내 누계 판매량은 45억개로 국내 판매량보다 7배 많다.

◇ 빠르고 저렴하게 한끼 식사 해결 ‘인기 비결’

현재 도시락은 러시아 현지에서 전량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라면 제품이 해외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과 달리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한 20대 현지인은 “가격이 저렴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어서 익숙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인은 맛과 품질이 자국 제품뿐 아니라 일본·베트남 제품에 비해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부족한 현지인에게 컵라면 특유의 빠른 조리도 인기 비결이다. 한 30대 남성은 “도시락은 10분 정도면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며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어 자주 먹는다”고 말했다.

◇ 10여 종 이상 다양한 맛, 철저한 현지화로 성공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은 10여 종에 이른다. 치킨·버섯·새우를 활용한 제품으로 현지인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엔 유럽 전반에 파고 든 K-푸드 열풍으로 일컫는 국물이 특징인 소고기 맛 인기가 많다는 후문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제품에 포크가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세심한 2%의 차이가 도시락을 ‘국민 라면’ 반열에 올려놨다. 팔도 관계자는 “꾸준한 현지화 전략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뉴스1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선정

경기 광주의 ‘편한세상 광주역 5단지’가 전기, 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아파트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감정원의 국가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2018년 기준)를 토대로 2015년 이후 준공한 전국 3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최우수상인 국토부 장관상은 e편한세상 광주역5단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가 우수한 에너지성능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 노력, 관리사무소의 공용시설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설명했다.

뉴스1

비자코리아 패트리 윤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지원”

신년 간담회서 2020 사업계획 발표



패트리 윤 비자코리아 사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비자 파트너사들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자 컨설팅 서비스는 전략

적 빅데이터 활용이 절실한 시장에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지면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활용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면서 “비자 파트너사들의 내부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개발된 분석 모델을 가지고 신용평

가, 채권 관리 등 기존 사업역량을 강화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은 1초당 6만 5000건, 1분당 4000만건의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포스팅 대비 70배이자, 모바일 다운로드 건수 대비 10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비자는 약 500명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컨설턴트로 구성된 VCA(Visa Consulting and Analytics)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 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인터넷은행, 온라인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컨설팅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